

2017. 8. 10

## 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선언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098-6670  
goenkim@meritz.co.kr

###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의료개혁 의지 확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 기존에 계획되었던 바와 같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의 손해를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개선 효과는 실손 보험료 인하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로 수렴될 듯. 다만, 비급여가 예비급여로, 다시 필수 급여로 분류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신포괄수과제 확대,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비급여 관리할 계획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기관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업계의 반발이 예상됨. 이에 대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목표 설정,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언급.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경우 건보료 인상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신포괄수과제(현행은 행위별 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점은 비급여 관리에 효과적일 전망.

### 실손보험 수요는 지속되며 중장기적 손해를 100%에 수렴할 전망

실손보험 수요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듯.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15년 기준 63.4%) 이는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남아있다는 의미. 실손 보험 수요가 사라질 수 있을 정도로 국민건강보험이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수준의 건보료 인상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 이번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보험업계에 긍정적인 이벤트로 판단함.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8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8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고은)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